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2월 15일

CUOMO 주지사, 뉴욕 주의회 의사당에서 링컨의 노예해방예비선언문을 전시한다고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예비선언문 공표 1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뉴욕주 박물관의 순회전시회의 마지막 장소로 2월 15일-16일에 뉴욕 주의회 의사당에서 노예해방예비선언문이 전시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예비선언문 (*The First Step to Freedom: Abraham Lincoln's Preliminary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링컨의 친필로 쓰여진 유일한 선언문이 전시되는 데, 이 선언문의 역사적 배경과 설명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노예해방예비선언문은 1862년 9월 22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최종 노예해방선언문은 1863년 1월 1일에 공표 및 발효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에는 1962년 9월 노예해방예비선언문 공표 100주년을 맞이하여 마틴 루터 킹 박사가 뉴욕시에서 작성하고 발표한 연설문 원고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 상, 뉴욕은 평등과 정의의 상징이었고 미국의 진보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해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노예해방선언문이 공표되고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의 가치가 모든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날마나 되새기고 있습니다. 뉴욕주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평등과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 하는 지금 저는 우리 주의회 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유물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뉴욕의 시민들이 이 전시회에 꼭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선언과 함께 태어났습니다"라고 John B. King Jr. 뉴욕주 교육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표가 이곳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에게 실현되기 시작하는 데에는 —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문에 서명하고, 북부군이 승리하고, 13차, 14차, 15차수정안이 미 헌법에 추가될 때까지 —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거의 10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선언문의 150주년기념일을 경축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Korean

이번 전시회는 뉴욕주도서관과 뉴욕주기록원에서 제공한 소장품과 영상자료도 함께 전시됩니다. 이 선언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여정에 중요한 좌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뉴욕주의 가장 큰 보물 중의 하나입니다. Schomburg Center 소장인 Khalil Muhammad와 수상 경험이 있는 링컨 역사가인 Harold Holzer는 커미셔너 King과 함께 전시회 도록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중이던 150년 전에 공표된 링컨이 직접 작성한 노예해방예비선언문은 링컨 대통령이 친필로 작성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유일한 원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원본을 미국 위생위원회에 기증했고, 이 기관은 1864년 Albany Army Relief Association 박람회에서 이 문서를 추첨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뉴욕주 입법부에서 이를 다시 구입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친필로 작성된 마지막 노예해방선언문은 1871년 시카고 화재로 불타 없어졌고, 노예해방예비선언문은 1911년에 있었던 뉴욕 주의회 의사당의 화재에 무사히 살아남아 뉴욕주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1962년 9월 12일, 시민 평등권의 선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뉴욕주 남북전쟁 100주년 위원회에게 이 전시회에 등장한 내용의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의 문화교육실 소장품인 두 문서는 미국 역사의 본질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순간의 150 주년을기념하여 최초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예비선언문* 전시회는 뉴욕주도서관과 뉴욕주기록원의 소장품과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뉴욕주박물관이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한 iBook을 포함해 전시회 관련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http://www.nysm.nysed.gov/e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시회로서, 참을 수 없는 갈등: 남북전쟁 발발 15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전쟁 당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An Irrepressible Conflict: The Empire State in the Civil War)*는Albany에 자리한 뉴욕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6,500 평방피트 규모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전쟁 당시 뉴욕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연대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2013년 9월 22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